

장공 김재준 목사의 신학과 지향

김 희 현(성공회대 연구교수)

들어가는 말

장공 김재준 목사(1901-1987)는 한국현대사의 격동기에 역사참여적인 성육신의 신학을 제창하며 한국교회와 사회에 새로운 물줄기를 놓은 실천적인 신학자이다. 그의 삶을 사로잡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전한 하나님 나라의 비전 즉, '범 우주적 사랑의 공동체'였다. 그 비전은 식민과 독재의 수렁에 빠진 민족의 역사에 뛰어난 모험적인 삶을 살아가며 스스로 길러 간 것이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근본주의 신학으로 물든 배타적인 종교정신에 맞서서 양심과 신앙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신학적 투쟁을 벌인 그의 영혼에 임한 하늘의 선물이었다. 장공은 암울한 현실을 그리스도의 부활로써 증언된 '제3일'의 희망으로 뚫고 나아갔으며, 교리주의와 교회주의로 빠져 들어가는 한국교회를 깨우기 위해서 비판지성을 지닌 책임 있는 신앙을 촉구하는 신학을 전개하였다.

대체로 장공의 신학적 특징을 '사회참여적 정치신학'에서 찾곤 한다. 한국신학의 여러 갈래를 유형화하기 위해 사용한 분류법을 따른 자연스러운 해석일 것이다. 장공이 1961년에 박정희 군인정권에 의해서 학교로부터 강제 퇴임되고, 그 후 서서히 사회운동에 뛰어들면서 1973년에는 반독

재운동의 지도자로 추대되기에 이른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그의 신학적 후예들이 1970년대와 80년대에 사회참여활동을 활발히 전개하였기 때문에, 장공의 가르침을 ‘사회구원신학’에서 찾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그 평가는 한편으로 옳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으로 물어야 할 점은 무엇이 장공으로 하여금 그런 길을 걷도록 했느냐는 것이다. 이것은 그의 영성과 신학의 전모에 대한 관심에서 비롯된 물음이다.

이 글은 장공의 영성과 신학의 특징을 기독교 신앙운동의 본질인 ‘하나님 나라를 향한 끝없는 전진’에서 찾고자 한다. 그의 사상을 특징짓는 두 요소는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믿음’과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시대를 뚫는 ‘모험’이다. 즉 ‘하나님만 믿고 모험하라’는 것이 장공의 가르침이자 삶이었다. 무슨 모험인가? 이 글은 그것을 앎과 삶과 뜻의 모험이라는 세 차원에서 개괄하고자 한다. 그것은 근본주의 신학에 맞선 종교적 비판 지성으로서의 앎의 모험, 축복의 분배를 둘러싼 종교적 사교를 넘어서 그리스도를 닮고자 하는 수난의 친교인 삶의 모험, 성공주의와 타계주의로 일그러진 신앙을 재정립할 제3일을 향한 부활신앙인 뜻의 모험이다. 이 모험은 그의 신앙을 불태운 ‘범우주적 사랑의 공동체’를 향한 열망으로 인해 가능했다.

1. 역사 속의 종교 : 성육신의 신앙 위에 세워진 기독교

기독교 신앙은 이 역사의 고통과 비극을 치유하고자 이 역사를 뚫고 들어오신 하나님, 그리하여 이 역사 속에서 화육하신 하나님의 사건에 대한 증언과 참여이다. 이에 대해서 장공은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발견된 진리를 증언하고, ‘그리스도의 생명운동에 동참’함으로써 그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라고 말한다. 그는 기독교의 종교적 갈망이 역사의 지평을 넘어서 있지만, 그 정신이 실제로 활동하는 지평은 역사라고 봤다. 그것이 기독교 신앙의 중심인 ‘성육신 교리의 방향’이라는 것이다.¹⁾ 기독교의 성육신 신앙은 ‘역사에서 신비어로 도피한다거나 현실

에서 관념으로 승화한다거나 세속에서 교회당으로 농성하는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적인 사랑의 정신이 물질문명 속에서' 움직인다는 믿음에 기초한다는 주장이다.

기독교의 성육신 신앙이 역사 속으로 화육하여 역사와 우주를 구원하는 신에 관한 증언이라면, 그 안에는 양극적 인 두 요소가 모두 담겨 있을 수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이면서 동시에 신이라고 했던 기독교의 원초적인 고백의 밑바탕에 이미 양극적인 두 요소가 조화롭게 담겨있다. 즉, 기독교 신앙이 추구하는 것은 “신적인 동시에 인간적이며, 영원이면서 시간적이며, 종교적이면서 이론적이며, 타계적이면서 현세적이며, 예정적이면서 자유이고, 믿음이면서 행위이다.”²⁾ 장공은 이것을 가리켜 “하나님이 개인과 역사와 우주를 구원하여 그 안에서 대조화를 이루게 하시는 신적인 생활운동에 대한 인간으로서의 대책”이라고 말한 바 있다.³⁾ 따라서 그는 기독교 신앙이 “인간의 현실생활에서 도피 혹은 유리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온갖 실생활의 가장 핵심적인 데 들어가 그 생활 영위의 동기와 동력이 되어야 할 것이며, 그리하여 그 생활을 이 우주적인 대단원을 향하여 추진”시키는 운동이어야 한다고 이어서 말한다.

장공의 신학에서 근본을 이루는 것이 바로 이 성육신의 신앙, 즉 창조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역사 속으로 뚫고 들어와서 모든 생명을 정의와 평화로 속량해가는 사건에 관한 것이다. 그것은 역사 속으로 화육하시는 그리스도에 집중하고 있는 기독교 신앙의 본질적인 증언이기도 하다. 장공이 성육신의 신학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역사에 화육된 사건으로서의 계시’라고 주장했던 이 사실은 재차 강조되어야 할 점이다. 그것은 한편으로 장공이 근본주의 신학과 맞서 투쟁했던 본질적인 이유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오늘날까지 한국교회에 질게 드리워진 교리주의와 교회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신학적 단서를 제공해주기 때문이다.

1) 『김재준 전집』 제5권, 274쪽.

2) 『김재준 전집』 제2권, 207-8쪽.

3) 『김재준 전집』 제2권, 342쪽.

교회를 포함한 종교적 기관의 근본적인 문제는 대부분 무더진 종교정신으로 인해 발생한다. 그것은 삶과 삶의 불일치라는 일상적 한계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며, 굴절된 현실을 변호하기 위한 삶의 왜곡이라는 보다 더 적극적인 양태로 나타나기도 한다. 한국교회의 제반 문제 역시 때로는 세속적인 삶으로부터 이탈(할 것을 주장)한 관념적인 신앙으로 인해서, 때로는 세속의 기성질서에 안주하여 스스로 노예의 굴레를 뒤집어 쓴 비굴한 신앙으로 인해서 발생했다. 장공은 한국교회가 성육신의 신앙이 지시하는 원대한 이상을 잃었기 때문에 표류하고 있다고 진단했다.⁴⁾ 근본주의 신학에 물든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계시를 성서에 대한 문자적인 맹신과 교리적인 추종을 통해서만 찾을 뿐, 역사 속에서 발생하는 계시적 사건에 주목하고 참여해야 한다는 점에 관한 의식이 실로 희박했다. 이로 인해, 교회에서 통용되는 복음은 무시간적 진리가 되었고, 신앙은 비역사적 행위가 되었으며, 기독교의 교리는 탈세상적 관념으로 해석되곤 했다. 이렇게 역사와 유리된 무시간적 신앙을 가리켜 장공은 ‘말씀의 설사병 환자’⁵⁾, ‘교리적 노예’ 또는 ‘실제적 인본주의’⁶⁾라고 비판한다.

4) 『김재준 전집』 제1권, 146-47쪽. “지금 조선교회의 문제가 무엇인가? 행로난이 문제가 아니라 원대한 소망에 불타는 자 원대한 환상에 그 마음 뛰노는 자 있고 없음이 문제이다.... 그 마음속에 거룩한 환상을 품지 못한 자로서 다만 교조와 언론과 모략을 재료삼아 자기중심의 직업적 열심에 맡기어 교회사를 농락한다면 그 결과는 필연적으로 분쟁, 배격 등의 악을 빚어낼 것이다.”

5) 『김재준 전집』 제12권, 148쪽.

6) 『김재준 전집』 제1권, 273쪽. “나는 얼마 전에 현대인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떠나 지식 자체를 이상화한 결과로 자기 허망에 빠져감을 말하였다. 이와 마찬가지로 허식(虛飾)이 교회인에게도 있음을 발견한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심령의 자유를 획득하는 반면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기 마음 안에서 자기의 종이 되어버린 것이다. 이것을 교리적 노예라고 말한다. 성경을 교리변증의 교과서 같이 여기고 간 데마다 교리구성자료만 찾아내려 한다.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는 교리주의자의 연구대상으로 객관화한 채 그만 그에게 우상이 되고 마는 것이다. 그리하여 이 이상만 가지면 자기 자신이 전능화하는 듯이 뽐낸다... 사탄은 사이비한 이단을 정통으로 위장시켜 정통의 권위로 신종(信從)을 미혹하며 교회의 평화를 교

장공은 성육신 신학이 길러낸 독특한 종교적 감수성을 지니고 있었다. 그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적 속량이 이뤄지고 있는 생동하는 세계에 ‘참여하는 것’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봤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신앙고백이란 특정한 종교적 가르침(교리)에 대한 지적인 동의를 넘어서 삶으로 드러내는 생동하는 진실이어야만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한 신앙고백은 ‘불안, 공포, 초조’에 기초한 ‘황혼적’인 종교지식의 표출이 아니라, ‘빛의 아들로 확보하는 공명정대함’에 기초한 생활로 증언하는 정신의 활력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⁷⁾

장공은 활력 있는 종교정신으로 이루어진 기독교 신앙을 가리켜 ‘생활 신앙’이라고 표현한 바 있다.⁸⁾ 그가 강조한 생활신앙은 역사적 삶의 전 영역에서 생동하는 기독교 정신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것은 한국교회에 널리 퍼진 제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처방이기도 했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란하려 한다. 소위 ‘신신학’이란 것은 기독교의 탈을 쓴 인본주의라 할 수 있다. 우리는 그 불신앙을 돌이키고자 힘쓴다. ‘정통신학’은 이보다도 더 교묘하게 위장한 실제적 인본주의가 아닐까?”

7) 『김재준 전집』 제4권, 247쪽.

8) 『김재준 전집』 제9권, 151-52쪽. “우리가 신앙한다 할 때, 그것이 우리 생활의 한 부분인 것 같이 생각하기 쉽다. ‘신앙생활’이라 할 때, 경제생활, 정치생활 또는 직장생활 등등이 있는 가운데서 믿는 사람에게는 신앙생활이란 것이 또 하나 덧붙는다는 것으로 해석하기 쉽단 말이다. 다른 모든 생활은 다른 사람들과 꼭 같은데 그는 바둑에 깊은 취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시간을 내서 기원에 다닌다는 식으로, 그는 종교 신앙이 있기 때문에 부지런히 예배당에 나간다는 것 같은 하나의 첨가된 취미생활이 종교인의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그런 하나의 ‘악세사리’로서의 신앙생활이란 아무 위신도 명령권도 없는 것이어서, 불편하면 언제나 버림받을 성질의 것이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이란 표현이 아니라, ‘생활 신앙’이란 표현으로 신앙이 정립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생활이란 ‘몸’과 같이, 삶 전체로서의 활동이다. 우리가 정말 전 존재를 바쳐 하나님을 믿고 전 존재를 이끌어 이웃을 사랑한다면, 그 신앙과 사랑은 우리 ‘삶’ 전체로서 고백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현대 한국교회의 잘못은 모이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모였다가 나가지 않는데 있다 하겠습니까. 이웃부재, 사회부재의 교회주의에 있습니다. 우리는 현존교회의 고정사상을 탈피하고 부단히 개혁하면서 종말의 완성까지 전진할 것입니다. 교회는 변천하는 역사의 속에, 곁에, 위에 그리고 역사의 화살촉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모든 인간에게 복음을 바르게 증거하고, 모든 인간을 사랑으로 섬기고, 역사의 미래를 창조하는 그리스도의 기수가 되는 것입니다.⁹⁾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역사를 속량할 수 있는 구원의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 기독교의 종교정신이 역사 속에서 생동하는 생활신앙이어야 하며, 신앙공동체인 교회의 선교활동 역시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을 분명히 이해해야 한다. 그것이 성육신 신앙에 기초한 기독교의 본 모습이며, 문화역사적인 상황 속에서 활동하지만 역사초월적 정신으로 그 존재 의미를 드러내는 교회의 모습이다. 장공의 성육신 신학은 역사(俗)를 속량해가는 하나님(聖)의 활동을 증언하는 성속일여(聖俗一如)의 신학적 세계관에 토대를 둔 종교사상이며, 하나님의 사건에 동참함으로써 그 신앙의 진실을 드러내고자 하는 책임신앙이다.

2. 기독교 복음의 변혁성 : ‘고난의 친교’를 지향하는 성육신 신앙

기독교의 성육신 신앙은 생생하고도 민감한 영성에 담겨진 보배로운 종교정신이다. 그것은 역사를 초월하는 비전을 간직하면서도 역사를 속량하려는 책임의식을 동시에 갖는다. 그것은 땅을 긍정하기 때문에 땅을 향하여 밀고 들어오시는 하나님의 화육(incarnation)을 증언하면서도, 땅의 질서와 가치를 하늘의 것으로 변화시키려는 하나님의 구원의 의지를 선포한다. 따라서 성육신 신앙은 땅/세상에 대한 존재론적 긍정을 하면서, 이와 동시에 땅/세상에 대한 가치론적 비판의식을 지닌다. 땅에 대한 존재

9) 『김재준 전집』 제9권, 263쪽.

론적 긍정은 하나님의 창조활동이 펼쳐지는 곳으로서의 땅, 생명이 존재하는 궁극적인 터전으로서의 땅이 지닌 의미에 대한 긍정인데, 그것이 기독교의 신학을 관념화시키지 않는 기반이다. 반면 땅의 질서에 대한 가치론적 비판은 하나님이 이 땅에서 활동하시는 이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기관으로서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이다. 하나님 나라의 도래는 이 땅의 질서를 변혁하는 것인데, 그것은 생명을 억압하는 낡은 질서에 대한 심판이다. 교회의 일어남과 무너짐은 바로 이 사실에 대한 분별력에 기초한다.

다시 말해서, 성육신 신앙이란 땅/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요3:16)에 관한 증언이자, 새 하늘과 새 땅(벧후3:13)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의지에 대한 신뢰이다. 문제는 이 두 가지의 정신적 긴장이 풀려서 서로 혼동을 일으키는 경우이다. 뒤틀린 성육신 신앙은 긍정과 부정의 지점을 혼동한다. 그래서 땅의 존재론적 의미를 부정하면서 신앙을 관념화하고, 이 세상의 질서를 가치론적으로 긍정하면서 기독교 세력의 종교적 수호자를 자처한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탈역사적인 교리신앙과 성공주의적 세속신앙이 동거하는 경우이다. 그것은 무지한 영성에서 비롯되고, 뻔뻔한 종교정신에 기생하여 지속된다.

장공은 한국교회의 교리주의, 성공주의, 교회주의, 교권주의에서 그와 같은 종교정신의 몰락을 봤다.¹⁰⁾ 그가 예언서를 연구한 신학자였기 때문에 교회 신앙안의 신학적 문제를 비판적으로 들여다 볼 수 있었으며, 역사의 요청과 부름에 민감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교회에 대한 교회 밖의 평가를 경청할 수 있었다. 장공의 고민은 이러했다. “무사주의를 평화라 하고, 비굴을 온유 겸손이라고 하고, 아첨을 건덕(健德)이라 하고, 안일을 축복한 바알의 선지자가 한국교회를 주름잡고 있다면,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

10) 『김재준 전집』 제10권, 346쪽. “크리스천이 세상에서 유리된다는 것은 고기가 물에서 탈출한 것과 같이 비정상이다. 우리의 설 자리는 우리 역사의 고장이다. 지금 여기서 우리는 발붙이고 산다. 여기가 우리의 운명을 결단하는 고장이며, 그 순간이다. 역사의식 없이 산다는 것은 몽환일 밖에 없다. 참 크리스천은 언제나 역사의 빛이요, 소금이였다.”

가는 공동묘지의 지대로 밖에 남지 않을 것이 아닐까?”¹¹⁾ 이런 물음은 장공이 개혁교회의 신학자로서 교회의 사회적 책임성과 역사 변혁적 비판 지성의 중요성을 깊이 체득하고 있었기 때문에 생겨난 것이었다. 그는 교회 자체를 변호하기보다는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길이 어디에 있는지를 근원적으로 물었다. 그 물음에는 제도와 기관으로서의 교회가 역사 속에서 저지른 과오에 대한 거대한 문명비판적 의식이 담겨 있었다.¹²⁾

장공은 개혁교회에 속한 신학자였지만, 개혁교회의 교리에 대한 정통주의적 충성보다는, 신앙과 양심의 자유정신에 입각하여 개혁교회의 신앙원리 자체를 되살려내고자 했다. 그것은 ‘문화의 폐색과 생명을 질식’시키는 ‘독선과 합리화’를 조장하는 ‘교리체계’가 아닌, ‘살아 계신 그리스도의 생명에 향응하여 세대를 창조하는 산 종교’에 대한 관심, 즉 ‘정통과 이단을 함께 초극한 생명에의 접선’이 가능한 지점을 되살려내는 작업이다.¹³⁾ ‘생명에의 접선’이 가능한 기독교 신앙은 과연 무엇일까? 장공에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전한 갈릴리의 복음 이외에 다른 곳에 있지 않았다. 그가 이해한 갈릴리 예수의 복음은 혁명적인 힘을 지닌 것이었다. 예수가 이룬 진정한 평화, 살림의 길인 십자가를 ‘가장 철저한 인간혁명, 사회혁명, 종교혁명을 위한 싸움의 표징’으로 이해한 것이다.¹⁴⁾

11) 『김재준 전집』 제12권, 37쪽.

12) 『김재준 전집』 제5권, 107쪽. “중세기를 지나 근대문명의 건설과 함께 서구의 기독교 국가들은 전 세계 미개발지역에 홍수같이 범람하여 제국주의적인 식민지정책을 감행하였다. 그 독수(毒手)를 펴서 식민화에 광분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그곳에 감춰진 온갖 보화를 파헤쳐 자기들의 금고를 채우고, 그 인간들을 노예화하여 그 고혈을 마셨다. 지금의 흑, 백 등 인종차별 문제도 이 식민정책 강행과 함께 생겨난 인류의 암인 것이다. 그리하여 서구의 화려 속에 동양과 아주(亞洲)의 해골이 호곡(號哭)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것은 백주의 음모요, 호사 속의 저주였던 것이다. 이런 근원적인 범과를 저지른 기독교국가 속에 자라난 제 이세가 현대문명이다. 물질욕이 윤리를 짓밟고 혼의 존경이 육욕에 삼킨바 되고 사랑은 하나의 ‘센티(멘털리즘)’으로 푸대접 받고 신앙은 우매의 동의어로 다루어지게 되었다.”

13) 『김재준 전집』 제5권, 390쪽.

14) 『김재준 전집』 제9권, 187쪽.

장공은 오늘날의 기독교 복음이 그 본래의 변혁적인 성격을 잃어버리고 세속의 성공을 위한 도구 정도로 전락해가고 있다고 애통해했다. 그 이유를 교회가 '버림받은 대중의 친구로서 대중 속에 그 삶을 심는데 실패'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¹⁵⁾ 다시 말해서 기독교가 '자기 충족감에 배부른 중산층의 교회'가 되어, 그리스도의 모습을 '미끈하게' 만들고, '십자가와 고난을 삭제해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이다.¹⁶⁾ 그리고 그 공백의 허전함을 관념적 교리에 대한 맹종과 즉자적(卽自的) 정서를 유발하는 성공신화로 채웠다. 그 결과 크리스천은 성공과 축복이라는 미끼에 걸려든 물고기와 같이 되어 하나님의 창조세계에서 변혁의 바람을 일으키는 주역으로서의 기상을 잃어버렸다. 교회를 교회답게 했던 '고난의 친교'는 상실되었고, 그 결과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사라진 것이다(딤후3:5). 장공은 복음의 변혁적 능력을 회복하는 길을 '고난의 친교' 정신이 아로 새겨진 갈릴리의 복음이 부여해주는 소망에서 찾았다.¹⁷⁾

3. '제3일'의 소망 : 기독교 영성의 실체

장공이 전한 기독교의 복음은 영원한 낙원으로의 회귀를 설명하는 종교 철학이 아니요, 자연의 무정한 법칙에 순응하는 과학사상도 아니다. 그가 이해한 갈릴리 예수의 복음은 역사를 새롭게 속량해가는 하나님의 창조적 사건에 대한 소식이다. 장공은 생명과 평화와 정의를 위해서 '오늘도 일하시는 하나님'(요5:17)을 증언하고자 했다. 그것은 정의가 조롱당하고 평화가 깨진 현실에서 고난당하는 피조물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에서 생겨난 것이었다. 고난 받는 피조물에 대한 절대적인 사랑, 장공에게는 그것이야말로 그리스도가 이 역사 속에서 늘 새롭게 복음이 되는 이유이다.

15) 『김재준 전집』 제4권, 279쪽, 324쪽.

16) 『김재준 전집』 제4권, 330쪽; 제9권, 43쪽.

17) 『김재준 전집』 제11권, 169쪽.

우리의 하나님은 영원회귀의 우주적 전일체가 아니다. 자연과 역사는 기정법칙에 맡기고 자신은 높은 보좌에서 내려다보기만 하는 초월신도 아니다. 인간에게 율법이나 도덕률을 주고서는 그 실천 여부는 인간자아에게 맡겨뒀다가 마감에 가서 심판만 하는 분도 아니다. 그는 이스라엘을 이집트의 종살이에서 해방하기 위하여 바로와 항쟁하는 역사의 하나님이다. 예수는 역사의 낡은 술이 아니라, 새 부대에 넣어야 할 새 술을 제공한다. 그는 새 역사, 새 인류의 처음 익은 열매로서 오고, 오는 세기의 앞에 언제나 새로운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는 늘 새롭다. 그는 늘 앞서 간다. 낡은 것을 새 것에 심는다. 왜 그렇게 새로울까? 왜 시기가 그를 앞질러 가지 못할까? 그는 언제나 혁명의 전선에서 싸우기 때문이다. 언제나 혁명을 요하는 밑바닥 인간들의 친구로서 그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대고 싸워주기 때문이다.¹⁸⁾

장공의 신학은 하나님의 창조적인 사랑에 대한 증언이지만, 그 증언은 기적의 교리로 보증하는 축복의 메시지가 아니라 사랑의 삶을 추동하는 소망의 메시지이다. 그것은 장공의 독특한 신학적 세계관에서 비롯된 것이다. 장공이 이해한 이 세계는 모든 행로가 정해진 결정론의 세계가 아니요, 의미를 잃은 비결정론의 세계도 아니다. 이 세계의 한편에는 몸을 입고 역사 속에서 현실화되기 위해 작동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다른 한편에는 하나님의 뜻을 입고 그 부르심의 소망을 따라 살아가면서 죽음의 질서가 만들어놓은 무계를 뚫고 일어서려는 모험적인 생명이 존재한다. 하나님의 구원은 이 세계를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재)창조이다. 하지만, 그 창조의 과정은 하나님의 뜻을 간직하고 분투하는 생명의 몸부림의 과정이기도 하다. 구원이란 하나님의 뜻이 그 모험적인 생명 안에서 육신을 이루는 때에 경험된다.¹⁹⁾ 그 과정은 하나님의 인내와 기다림의 과정이자, 하나

18) 『김재준 전집』 제9권, 187-8쪽.

19) 『김재준 전집』 제1권, 184쪽. “우주는 생명으로 가득 차 있다. 그런 의

님의 뜻을 향한 생명의 분투의 과정이다.²⁰⁾

우리에게 경험된 이 세계의 현실은 ‘고정된 반석이 아니라 유동하는 흐름’이다. 우리의 삶은 ‘과도를 저어가는 항해’이며, 교회의 존재양식 역시 ‘고정된 안전이 아니라 불안한 모험’이다.²¹⁾ 이 불안한 현실은 도전이자 유혹이다. 교회와 신앙인이 이 도전을 회피하고 유혹에 넘어가는 경우에 생겨나는 대표적인 사례는 아마도 즉각적인 성공과 축복을 보증하는 기적의 교리일 것이다. 장공은 이렇게 말한다.

기적을 구하는 자들은 다 열심 있는 초자연주의자들이었기 때문에 ‘하늘의 표적’을 갈망하고 있었으나 하면,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였다는 것이 다시 생각할 점이라 하겠다. 돈을 사랑하는 바리새인, 교권에 급급한 사두개인, 세상일에 파묻힌 대중들이 오히려 하늘의 기적을 구하고 있었다는 것이 재미있는 현상이 아닐 수 없다. 기적을 구하는 마음, 그것은 자기공허의 산울림이다. 그것은 막다른 골목에 부딪친 여유 없는 초조감이다. 그것은 믿으려 하면서도 믿지 못하는 자기교만의 몸부림이다. 그것은 믿음 없는 자기의 책임을 하나님께 전가시키려는 간계다. 그것은 도덕적인 책임보다는 형이상학적인 호기심을 만족시키려는 심사다. 그것은 힘 들이지 않고 그저 먹으려는 마음의 발로다. 그것은 남의 덕에

미에서 ‘산 우주’라고 말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 생명이 현실화하지 않으면 우리와 상관이 없다. 생명의 현실화한 것이 곧 생활이다. 우주에는 말쑥이 차 있다. 우주 만상 자체가 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이루어 우리에게 거주하며 우리와 생활을 같이 하기 전에는 참 구원은 오지 않는다.”

20) 『김재준 전집』 제4권, 534쪽. “하느님의 창조에 있어서 아메바 시대로부터 아담·하와가 선악과를 따 먹을 때까지, 그리고 영리해진 현대인에 이르기까지 하느님은 도대체 몇 억만 년을 참고 기다렸겠습니까? 그 아득한 자연사의 깊이를 상상해 보십시오! 아주 비근한 예를 든다면, 나무 한 그루가 기동감이라도 될 만큼 자라려면 근 1백 년을 한 고장에서 서서 자라야 합니다. 그만큼 하느님은 그 나무의 생명을 지켜보신 것입니다.”

21) 『김재준 전집』 제10권, 39-42.

갑자기 출세하려는 세속인심의 반영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기적을 구하나 요나의 기적밖에 보일 것이 없다”고 단호히 거부하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을 떠나가셨다.²²⁾

그렇다면, 이 세계를 살아갈 기독교적 삶의 가능성, 그 종교적 영성의 실체는 무엇인가? 우리는 이 물음에 대한 답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발견했던 사도 바울의 증언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다.²³⁾ 그러나 십자가마저도 기적과 축복의 도구로 해석하는 신학적 왜곡 앞에서 우리는 장공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을 수 없다. 그는 십자가를 ‘악마의 세력, 세속, 역사의 불의와 불신앙에 도전하는 결사대의 행진’으로 봤다.²⁴⁾ 그 결사대의 행진은 ‘스스로를 제물삼아 이웃을 구원하는 거룩한 섬김의 결단’으로 가능한 ‘거룩한 사랑의 생활’이다. 장공은 그것을 기독교 신앙이 만들어내는 진정한 기적, ‘하늘이 땅에 통하는 기적’이라고 봤는데,²⁵⁾ 장공은 그 기적을 머금은 기독교적 영성의 실체를 ‘제3일’이라는 개념에 담았다.

‘제3일의 영성’은 죽음의 세계에서 부활의 세계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지켜져야 할 기독교 신앙의 영적 정체성이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한 이후 부활하기까지의 시간인 3일(three days), 그 기간은 예견된 부활의 시점까지 인식하는 그리스도의 휴가철도 아니요, 악이 질서를 외면한 하나님의 부재 시기도 아니며, 결과론적 승리를 찬양하는 안락한 신앙의 계절도 아니다. 그 시기는 그리스도마저도 지옥을 경험한 어둠의 시기요, ‘고난의 친교’가 그 진실을 입증받기까지 견뎌야만 하는 수모의 시기요, 자기 십자가를 멘 사람들이 하나님의 정의에 대한 마지막 믿음과

22) 『김재준 전집』 제4권, 109.

23) 고린도전서 1:22-24. “유대 사람은 표적을 구하고, 그리스 사람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그리스도를 전하되 십자가에 달리신 분으로 전합니다. 이것은 유대 사람에게는 거리낌이고, 이방 사람에게는 어리석음이지만,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유대 사람에게나 그리스 사람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24) 『김재준 전집』 제11권, 87.

25) 『김재준 전집』 제4권, 112.

저도 잃게 될지 모르는 위기의 시기이다. 힘이 뜻을 조롱하는 시기다. 그렇다. 그러기에 충분한 종말론적 긴장의 시기다. 이 시기를 살아가는 신앙인을 지켜내는 것이 제3일(the third day)에 대한 소망이다. 제3일의 영성은 '죽음에 묻혀 시체로 썩기에는 너무 생명적인' 그래서 바울의 증언 '죽음이 생명에 삼킨바 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다.²⁶⁾

장공은 한국사회가 정치적인 어둠 속으로 빠져 들어가던 시기에 '제3일'이란 이름의 잡지를 창간한 바 있다. 그 창간호에서 '제3일의 영성'은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오늘도 내일도 나는 내 길을 간다!” 이것이 예수의 삶이었다. 사람들은 자기들이 가는 길대로 가지 않는다고 그를 잡았다. 그래서 첫날에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다음 날에는 무덤 속에 가두고 인봉했다. 그러나 인간들이 자기 악의 한계점에서 ‘됐다!’ 하고 개가를 부를 때, 하나님은 ‘아니다!’ 하고 무덤을 헤친다. 예수에게는 이 ‘제3일’이 있었다. 그의 생명은 다시 살아 무덤을 헤치고 영원에 작열한다. ‘제3일’ 그것은 오늘의 역사에서 의인이 가지는 특권, 역사의 희망은 이 ‘제3일’에 동튼다. 이날이 없이 기독교는 없다. 이날이 없이 새 역사도 없다.²⁷⁾

제3일의 영성은 ‘이 역사 속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義)의 뿌리를 심어 넓게, 깊게 뻗게 하는 정치’를 펼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며, 하나님이 일으키는 그 사건 속에 참여하고자 하는 신앙인의 종말론적 다짐이자 소망이다.²⁸⁾ 그것은 예수의 제자들이 지닌 영적 정체성이다.

4. 범우주적 사랑의 공동체 : 복음과 신앙의 꿈

26) 『김재준 전집』 제12권, 88.

27) 『김재준 전집』 제9권, 289쪽.

28) 『김재준 전집』 제9권, 305-6쪽.

제3일의 영성을 지닌 신앙인의 꿈은 무엇인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복음사역의 첫 말씀으로 전한 ‘하나님 나라’다. 장공의 전 생애를 꿰뚫은 기도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이다”일 것이다. ‘기독교의 건국이념’이라는 제목의 글에는 장공 사상의 핵심이 다음과 같이 표현되어 있다.

기독교인의 최고사상은 하나님 나라가 인간사회에 여실히 건설되는 그것이다. 그러나 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초세간적 내세적인 소위 천당이라는 말로서 그 전부를 의미한 것인 줄 알아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뜻이 인간의 전 생활에 군림하여 성령의 감화가 생활의 전 부분을 지배하는 때 그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이며, 이것이 전 사회에 삼투되며 사선을 넘어 미래 세계에까지 생생 발전하여 우주적 대극의 대낙원의 날을 기다리는 것이 곧 하나님 나라의 전모일 것이다.²⁹⁾

여기에 이미 장공의 신학사상을 포괄하는 핵심개념인 ‘범우주적 사랑의 공동체’³⁰⁾ 내용이 나타나있다. 장공은 이 개념으로써 왜곡된 교회신앙을 교정하여 기독교 복음증언의 알맹이를 지켜낼 뿐만 아니라, 역사를 감싸 안으면서도 이 역사를 넘어서는 기독교 신학의 우주적 비전을 드러내고자 했다.

신학자로서 장공이 지닌 사상적 미덕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비전의 포괄성에 있다 할 것이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장공은 자신이 속한 교회로부터 고통을 받기도 했고, 존경을 받기도 했다. 신학수업을 마친 장공이 처음 부딪친 것은 배타적인 정신으로 위축된 교회현실이었다. 당시의 한국교회는 성서의 진실을 문자적 맹신에서 찾는 축자영감설에 빠져 있었고, 기독교의 진리를 교리적 추종에서 밖에 발견하지 못하는 사상적 폐쇄에 갇혀 있었다. 신앙인을 ‘제3일의 영성’으로 독려하며 역사적 책임을

29) 『김재준 전집』 제1권, 159쪽.

지닌 주체적인 인간으로 세우기보다는 교회주의에 머무르게 하였고, 교회를 섬김의 공동체로 세워가기보다는 교권주의적 다툼에 몰두하여 결국 교회분열을 가속화시키고 있었다. 교회는 과학과 철학을 원수 취급하면서 사상적으로는 우물 안의 개구리가 되어가면서, 한편으로는 천당을 향한 타계적인 모습을 다른 한편으로는 세속에서의 성공과 지배를 탐하는 모습을 키워갔다. 장공은 한국교회의 이 모든 비극이 바로 ‘범우주적 사랑의 공동체’라는 ‘큼직한 비전이 우리의 시야에서 사라졌기 때문에’ 생겨난 문제라고 진단했다. 장공은 그 비전이야말로 ‘전 우주에 적용되는 영원한 생명의 길’로 확신했으며, 교회가 그것의 ‘거점ियो, 전진기지’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³⁰⁾

장공은 ‘범우주적 사랑의 공동체’라는 비전을 예수께서 전한 복음의 두 가지 원리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병행하면서 만들어지는 ‘공동체적 생명’이라고 이해했다.³¹⁾ 그는 온 세계를 속량코자 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깊은 만큼 그 사랑이 온 우주를 품을 수 있을 만큼 넓다고 확신했다. 따라서 대부분의 한국교회가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을 배타적인 종교성과 독선적인 주장으로 이해했던 방향과는 정반대로, ‘오직 예수’³²⁾를 향한 장공의 믿음은 그리스도의 맘을 본받아 범우주적인 차원으로 뻗어나갔다. 장공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철저한 집중은 온 우주를 향한 드넓은 영성을 요구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그의 ‘범우주적 사랑의 공동체’에 대한 비전은 그리스도를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생겨난 부차적인 산물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생겨난 본질적인 확신이었다.

장공을 사로잡은 ‘범우주적 사랑의 공동체’라는 커다란 비전은 그가 읽

30) 『김재준 전집』 제16권, 349쪽, 352-3쪽.

31) 『김재준 전집』 제4권, 289쪽.

32) 『김재준 전집』 제1권, 113쪽. 장공의 신학은 가장 단순하게 표현한다면 “오직 예수”일 것이다. 젊은 시절부터 그리스도를 온 몸으로 따르고자 했던 그의 고백은 이렇다. “우리의 신앙은 오직 예수, 우리의 영웅은 너무나 많고 우리의 목적은 너무나 산만합니다. 예수만. 아, 주님만이 저희와 함께 계시옵소서.”

어떤 시대의 요청이기도 했다. 그는 현대 종교가 ‘교리적인 논쟁으로 우열을 가리던 시기’를 지났으며, 인류의 지성이 ‘외부적인 강압으로 종교를 처리하는 것을 망상’으로 여기고 있다고 판단했다.³³⁾ 따라서 그는 당시의 한국교회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신학적인 주장들을 개진하는 데 있어서 양심과 학문의 자유를 발휘하였다. 종교적 세계관의 건강성과 세속 학문에 대한 신학적 책임성을 위해서 과학이나 철학과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실재를 드러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³⁴⁾ 겸손한 자세로 이웃 종교의 지혜를 배울 것을 권고할 뿐만 아니라,³⁵⁾ ‘그리스도의 심정’을 우리의 고유문화에 섭취 소화시켜 기독교를 토착화해야 한다는 제안까지 내놓았다.³⁶⁾ 여전히 대부분의 한국교회는 이러한 신학적 주제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 어쩌면 그것은 ‘먼저 지배욕의 종교에서 사랑과 봉사의 종교로 개종’하여 그 열과 혼이 바로 서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과제일 것이다.³⁷⁾

‘범우주적 사랑의 공동체’는 모든 생명이 참된 정의와 평화를 누리는 경지를 응시하고 있는 기독교 복음과 신앙의 꿈이다. 먼 옛날 예언자 이사야의 꿈이, 갈릴리 예수와 그를 따랐던 제자들의 꿈이 그것이었다.³⁸⁾ 장공은 한국의 교회공동체가 그 꿈을 다시 한 번 드넓게 펼쳐가자고 주장했다. 그 꿈을 지켜가기 위해 거센 파도에 맞서서 한 번 멋지게 “모험하자!”고 외쳤다. 그 모험은 삶에서, 삶에서, 뜻을 세우는 일에서 모험을 해내는

33) 『김재준 전집』 제7권, 160쪽.

34) 『김재준 전집』 제1권, 294쪽. “과학의 세계를 철학으로 감싸고 종교로 순화하여 전우주적인 구원의 왕업을 추진시켜야 할 것”을 주장함.

35) 『김재준 전집』 제7권 160쪽, 344-5쪽.

36) 『김재준 전집』 제7권, 312-3쪽.

37) 『김재준 전집』 제7권, 345쪽.

38) 『김재준 전집』 제17권, 14쪽. “그 때가 오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자연이 하느님의 즐거운 동산이 되고, 모든 자연생명이 하느님의 사랑 안에서 하느님을 찬양하고, 다시는 서로 해치는 일이 없고, 인간은 하느님 자녀로서 하느님 형상으로서의 인간원형으로 회복되어, 시간 공간에 제약 없이 자유하는 영의 사람으로 성숙하게 되는 속량의 우주적 완성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입니다.”

것이다. 교리적 지식만으로는 그 깊이를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성육신의 세계를 느끼고 깨닫기 위해 삶의 모험을 하자고, 성전주의에 빠진 종교의 회장을 찢고서 십자가에 오른 그리스도를 따르는 수난의 친교를 기꺼이 감당하는 삶의 모험을 해보자고, 세속의 성공이나 타계적 환멸을 번갈아 타는 종교적 주술에 빠지지 말고 제3일의 영성으로 우뚝 서는 뜻의 모험을 해내자고 부른 것이다. 이 모험을 통해서, 성육신의 비전으로 인도받는 역사참여의 교회, 수난의 친교를 기쁨으로 감내하는 생활신앙의 수행적 교회, 제3일의 영성으로 우뚝 선 씨울들의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진정으로 이뤄내, 범우주적 사랑의 공동체의 전진기지를 확보하자고. 그것이 복음과 신앙의 진정한 꿈이 아니냐고, 우리를 일깨우며 불러내고 있는 것이다.

장공 김재준 목사가 활동을 했던 때는 벌써 두 세대 전이다. 그 때는 한국개신교가 부르주아 종교로서의 길을 걷기 시작한 때이다. 오늘날 한국교회에 널리 퍼진 위기는 교회의 성장이 부르주아 종교로서의 완성과정과 동일하였기 때문에 생겨난 것이 아닐까? 장공의 목소리는 오래 전에 사라졌다. 그러나 그의 신학적 실험과 신앙적 모험정신은 되살려가야 할 한국교회의 미래여야 할 것이다. 卍